

안양소년원

○ 매체 : 국제뉴스 (2024. 5. 21.)

○ 제목 : 법무부 정심여자중고등학교, 감사&축하 데이(day) 개최

법무부 정심여자중고등학교, 감사 & 축하 데이(day) 개최

| 스승에게는 감사를, 제자에게는 축하를



(안양=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법무부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원장 김대요)는 지난 20일 본교 강당에서 감사 & 축하 데이(day)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생님에게는 감사, 성인이 된 학생들에게는 축하를 전하는 행사로 1부는 생활에 기쁨, 2부는 스승에게 감사, 3부는 성년으로서 성장, 4부는 더불어 나눔을 주제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1부는 공연단체 프리마 앙상블(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에서 DANCE ON 8HANDS라는 주제로 소프라노 박수정, 플라멩코 최원경 등이 카르멘 서곡, 어머니 마음, Volare(날아올라) 등의 공연을 보여 학생 및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2부는 스승과 제자의 마음을 담은 영상 '정심에서 온 편지',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리코더 연주('스승의 은혜' 등), 학생 감사편지 낭독, 카네이션 전달 등이 차례로 진행되었고, 3부에서는 성년이 된 학생을 위한 성년선서와 성년선언, 장미꽃 등 축하 선물 전달식이 이어졌고, 마지막 4부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간식을 먹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감사편지를 낭독한 A양은 "검정고시 수학 점수가 처음에는 50점이었는데 선생님들이 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도해주셔서 시험에서는 기적적으로 100점이 나왔다"며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심여자중고등학교 김대요 원장은 "성년이 된다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꿈임 없이 노력해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